

“한국수자원학회 30주년 기념강연회” 경과보고

조 용 식 (세종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본 학회에서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준비를 위하여 기획위원회(위원장 송재우 홍익대학교 교수) 산하에 창립 30주년 기념준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997년 4월 2일 구성하였으며(위원장: 조원철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간사: 조용식 세종대학교 교수, 위원: 강중수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섬진강사업본부 건설처장, 김형렬 건설교통부 사무관, 서일원 서울대학교 교수, 이재용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전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허준행 연세대학교 교수), 위원회에서는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로 초청강연회 개최와 서울·경기지역과 대전·충청지역 대학생들의 용담댐 및 대청댐 견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댐 견학에 관한 기사는 본 학회지 1997년 10월호에 이미 기사화 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초청강연회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강연회의 주제를 “21세기의 물 환경(Water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으로 결정하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수리 및 수문학 전문가 3명을 초청하여 1997년 11월 20일 국제 학술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엄밀한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선정한 연사는 Dr. James A. Liggett(Cornell 대학교 명예교수), Dr. Neil S. Grigg(Colorado 주립대학교 교수) 및 Dr. Nobuyuki Tamai(Tokyo 대학교 교수)등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연사 선정후 각 연사와 접촉하여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강의 청취를 돕기 위해 연사들로부터 원고를 접수한 후 편집·계분하여 강연회장에서 배포하였다.

초청연사 세분은 모두 예정대로 11월 18일 오후 서울에 각 대학 동문들의 환영속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19일에는 본 학회에서 제공하는 한국 민속촌을 관광하였고, 오후에는 각 학교 출신 동문들과의 만찬을 갖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초청강연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강연은 40분의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위원장인 조원철 소장이 사회를 보았다. 각 연사의 강연 제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역할 (The Role of Education)

Dr. James A. Liggett

수자원 관리 (Water Resources Management)

Dr. Neil S. Grigg

자연형 하천계획 (Fundamentals for Nature-Oriented River Works)

Dr. Nobuyuki Tamai

Liggett 교수는 “교육의 역할”에서 오랜 교직생활(1961년-1996년)과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ASCE) 편집인(1990년-1994년)의 경험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은 교육과정의 역동성과 끊임없는 변화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학생들이 미래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과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한 이용가능한 기술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21세기의 교육은 20세기의 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을지라도 보다 현대적인 제도가 요구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Grigg 교수는 “수자원 관리”에서 21세기에 수자원 관리자들은 인류와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며, 수자원 관리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자원 관리 개념으로 포괄적인 수자원 관리와 통합적인 자원 계획 등과 같은 현대적인 수자원 관리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연하였다.

Tamai 교수는 “자연형 하천계획”에서 자연보호는 하천계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천뿐만 아니라 유기체와 유기체의 주거공간을 포함하는 생태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하천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자연형 하천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와 해법들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강연 후 초청연사들은 한국수자원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본 학회의 고문 및 참여회원과 더불어 회장인 서울대학교 선우중호 총장께서 주최하는 저녁 만찬에 참석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관해 대화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초청연사들의 모든 공식일정은 21일 오전까지였으나, 21일에 Grigg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Evolution of the Field of Water Resources”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Tamai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Flow around Deflectors Viewed from Echohydraulics”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갖는 것으로 모든 방문일정을 마치고 출국하였으며, Liggett 교수는 21일 한양대학교에서 “An Inverse Calculation for Calibration and Leak Detection in Pipe Networks”라는 제목으로, 24일 대한토목학회 부산·경남지회의 초청으로 부산에서 “Interactive Fluid Mechanics on CD-ROM”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25일 출국하였다.

끝으로, 본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외국의 저명한 석학들을 초청하는 학회의 공식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참여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학회행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경과보고를 맺는다. ●●